

11.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 최호균 목사

본문	사도행전 27장 20-26절	주제/사건	풍랑을 만난 바울 / 두려움
문제제기	<p>1.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가?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p> <p>2. 코로나19 때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옆에 두며 살았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p> <p>3. 지금 바울일행은 광풍을 만나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야 했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기상 속에 있다. 두렵지 않은 게 이상하다.</p> <p>4. 우리 인생에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다.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한다. 소망도 없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가?</p> <p>5. 걱정 때문에 잠을 못자는 게 당연하다.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너무 개인적인 생각 아닌가? 상황을 무시한 무모한 믿음 같다.</p>		
설교	<p>도입>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 인생에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면 누구나 두렵다.</p> <p>본문설명></p> <p>1. 바울이 안심하라고 한 것은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짐을 말하지 않는다.</p> <p>2.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바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세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사명이 있었다.</p> <p>메시지></p> <p>1.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서 평안하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평안을 주지 않는다. 문제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p> <p>2. 사명이 있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는 그 길에 만나는 광풍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p> <p>3.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주신다.</p> <p>4.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주어지는 평화, 우리가 문제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p>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 .

사도행전 27장 20-26절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은 번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는 ‘증명’을 참 좋아합니다.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 ‘확실한 증명’은 우리들에게 확신과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은 우리의 일상을 깨는 그 무엇으로 인해 와지는 현상입니다. 흔히 ‘저절로’ 증명 되었다라고 말 할 때도, 실상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원하지 않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외부적인 힘이 가해진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풍랑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입증되지 못할 일들이, 오늘 광풍을 만나 자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때로 풍랑이라 불리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들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풍랑이 힘들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무엇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 같은 풍랑을 만날 때,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명확한 증명의 시간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풍랑은 그저 환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건은 사도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항해 가운데서 ‘유로굴라’라 불리는 광풍을 만나면

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지만, 배가 풍랑을 만나면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풍랑을 견디고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풍랑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버릴 수 없는지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를 타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 삶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는 순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가 밝혀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며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분에게 늘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내용이었던 모양인데, 결단의 순간이 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이 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골프’였고, 하나님과 경쟁 1순위인 골프를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민인가요?

그래서 혼자 우선순위를 조정했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골프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이죠. 골프가 아닌 다른 것을 말입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단의 순간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고려할 순간조차 가지지 못하는 절박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가족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았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증명의 순간을 생각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은 때 결정해야 하는 그 무엇일지 모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순간에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 결정의 순간, 우선순위의 선택이 단순해 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히 ‘사명 앞에 설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풍성한 삶을 살기로]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였습니다. 20년 전 청년사역을 하며 가슴을 뜨겁게 했던 때를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가슴이 뛰는 설교였는데, 지금은 가슴이 아픈 설교였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던 때 인생이 참 단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생이 참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아져 버렸습니다.

사명이 흐려지지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려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을 살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 .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심에 서자 참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말인데,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것이라는 말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왜 사도바울은 두려움이 아닌 ‘사명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도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순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도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난 후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의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의 ‘종’이요, 다른 하나는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한 종이 되어 그가 증언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입니다.

사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어떤 사건을 종결짓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가운데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유라굴라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징검다리를 디디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4-6절.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 사도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쇠했고 게다가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호송되는 길입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소유는 ‘선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를 이끌고 있는 ‘선장’이 있습니다. 배 안에는 바울의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휘하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75명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증인된 바울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사도바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바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 일로 인해 사도바울의 온 생애가 연결되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광풍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 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생애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57개의 도시를 누비며 무려 1만 3천 3백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그가 다녔던 수많은 도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등장하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더불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가고 있는 3차 전도여행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있었는데,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약 20년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때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해 약 10년간 바울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과 함께 승선해 있는 275명 중에는 바울의 조력자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약 20년에 이릅니다. 아리스다고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때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 역시 바울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기간은 대략 10년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5명 중에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제외하면 남은 사람은 273명입니다. 바울 덕분에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음에 이듬해 봄에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여 바울과 헤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낸 기간은 겨우 몇 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지낸 기간은 다 동일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투스 소명을 다하였고 주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그들 모두를 구해주셨습니다. 천사가 부러워하고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신비한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항해하는 기간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평생 항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과는 몇 년, 또 어떤 사람과는 몇 달 혹은 몇 날만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튀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항해 길에서 우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을 살려 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시기하여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모함하며 헐뜯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튀스로 살아가는 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선포가 우리를 주눅 들게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바울의 일상입니다. 본문 25-6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갈 길을 알면 두렵지 않다!

지금 사도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은 뻘하였느니라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죠.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상황에 처해보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량을 만났는데,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며칠을 계속해서 풍량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른 날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컴컴한 먹구름 속에서 광풍이 부는데,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재난 영화가 많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간접경험이기는 한데,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는 순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거나 다쳐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또한 고립된 재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누군가 우리를 구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재난’ 보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폭풍이 길어지면서 점점 소망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의미가 이해가 될 듯합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그 상황이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을 듯합니다.

When neither sun nor stars appeared for many days and the storm continued raging,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언 듯 보면 상당히 시적인 표현으로 ‘해 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당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지도나 레이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방향을 보여주는 유일한 나침반이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조되리라는 ‘남은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성경에 보니 ‘many days’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서 셀 수 있는 날의 숫자는 어디까지 일까요? 그리고 셈을 넘어 서 ‘많은 날들’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구조희망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날이 지나 간 것입니다.

더욱 큰 공포는 ‘여러 날 먹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버틸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에게 확신을 준 말이 무인가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사도바울이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고비를 지나고 있지만,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서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리라는 음성입니다.

분명한 사명, 분명히 가야할 길이 정해져 있으니 지금 상황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해 어떤 장로님 댁을 심방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전화로 기도를 했던 장로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 심방이 불가능 했기에, 전화로 기도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장로님이 참 고맙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만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기도부탁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보니, 이미 말기 암이었고, 암 세포가 여기저기로 많이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항암치료를 받아야 할지, 여러 곳에 퍼진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의료진도 난감한 상황에서 기도부탁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심방을 하고 위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에 심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 하려고 갔는데, 평안하게 그 시간을 지나가는

장로님을 보면서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야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나요?

사실은 풍량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모르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두운 전망을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잡혔다고 생각하고 규제를 풀었지만 봄철 황금연휴에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액수들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투자를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 할 수 있을까?

사도바울은 어떻게 그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외우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시편 23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은가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약한 동물들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강하고 센 녀석들만 늘어져 낮잠을 자죠. 약한 동물들은 바스락하는 작은 소리에도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홍민기 목사가 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필립 켈러 목사님은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양이 누울 수가 있지?’라는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건너가 8년 동안 실제로 목자 생활을 했다.

그런 후에 쓴 그의 책 [양과 목자]는 시편과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 되었다.

이 책에 따르면 양들이 누우려면 4가지 상황과 여건이 다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양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둘째, 해충이 없어야 한다. 털 있는 짐승이 밖에서 지내면서 해충들로부터 자유롭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 어느 양이 다른 양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문제없이 양 무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도 잘 먹었으니 내일도 먹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광풍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누리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풍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시편 23편 가운데 정말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에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는 ‘푸른 풀밭에 누울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아니라 ‘주와 함께’ 할 때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때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함을 경험한 때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왕궁에 누워 낮잠을 자고, 한가롭게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 가장 고달픈 아픔의 시간은 바로 그 때였습니다.

사도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백, 가장 아름다운 찬양, 깊은 기도는 예외 없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선명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라고 말이죠. 본문 25-6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